

10/28(수) 사사기 묵상 9

사사기 3:1-6

하나님께서 가나안 전쟁을 경험해 본 적 없는 이스라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아닌지를 시험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은 이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신 30:17-20, “그러나 네게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요 네 장소이시니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시험

성경에 보면 두 가지 종류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외부로부터 오는 시험(도키마조)과 내부로부터 오는 시험(페이라조)입니다. 첫번째 시험(도키마조)은 영어로 ‘Test’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이것은 성도의 믿음을 온전케 하며 또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는 역할을 합니다. 두번째 시험(페이라조)은 우리 내부로부터 오는 시험으로서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시험(Temptation)을 말합니다. 그 중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첫번째 시험(Test)이지 죄에 넘어지게 하는 두번째 시험(Temptation)이 아닙니다(약 1:13,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 여호수아와 함께 있던 이전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 청종하며 순종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며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이에 사사기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내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 민족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 그 땅에 일부러 남겨두신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삿 3:1-2,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시험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결과를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것은 전쟁에 대한 경험이 없는 세대들에게 친히 주변 민족들과 전쟁을 겪게 하여 사사들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경험케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는 가나안 땅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시험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전 세대의 불순종을 뒤우치고 주변 이방 민족들의 ‘울무와 닷’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대대로 축복을 받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들이

저지른 악한 결과에 대해 보고하고 있습니다(삿 3:5-6,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모세와 여호수아는 다음 세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했던 당부는 우상을 섬기는 이방 족속들과 혼인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수 23:12-13,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 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은 결국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말씀을 완전히 뒤로하고 이방 민족과 혼인하고 왕래하면서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신앙 생활에 있어 두 가지 시험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음을 묵상하게 됩니다. 이에 우리는 그것이 어떤 종류의 시험인지를 먼저 구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약 1:5). 또 예수님께서서는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또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할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떠한 시험에서도 그 시험에 걸려 넘어지거나 또는 실족해서 악한 결과를 이루지 않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성경은 우리가 시험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말씀 위에 바로 서서 시험을 대적하는 것(마 4:3, 사탄의 시험에 말씀으로 승리하신 예수님), 또 늘 깨어 기도하는 것(마 6:13; 마 26:41),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엡 6:13-17)하여 살아가야 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비록 우리가 어떤 시험을 만나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비록 시험에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주님께서서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며 또 우리로 하여금 그 가운데 성숙하고 지금보다 더 온전한 자들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약 1:3-4,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앎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성경은 시험에서 이기는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약 1:2-4, 12)과 주의 칭찬과 영광 그리고 존귀(벧전 1:6-7)가 주어지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 안에서 이러한 시험을 분별하고 이겨내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제목

1. 여러가지 시험 가운데서 주가 주신 지혜로 분별하며 또 영적으로 깨어 말씀과 기도로서 시험을 이기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시험에 때론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그 안에서 더욱 성숙하고 연단된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2. 우리교회가 함께 협력하는 김택호<중국>, 박훈용<캄보디아>, 우석정<비에트남> 선교사님의 가정과 현지 사역지의 건강과 필요 그리고 영적인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3.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 주변에 코비드 19로 인해 또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 처한 교우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